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이심전심으로써 다 연결돼 있다

☞ 25면에서 계속

사람들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다 편리하고 식구들도 다 편리하게 살 수 있지, 가정이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내 몸속의 생명들도, 중생들도 다 한마음으로 자리가 잡혀야 이게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야 바로 여유가 있게 유유하게 열매를 맺고, 바로 거기에 무르익어서 그것을 남들을 다 주고, 주면서도 항상 거기에 중심은 되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불종자가 되남아 있기 때문에 근기로써, 모든 지혜로써 들이고 내는 데에 손색이 없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정에 들면 이 뿌리가 완벽하게 내렸기 때문에 바로 어딜 가도 내 자리요, 누구를 봐도 나 아님이 없음이요, 어떤 아픔을 봐도 내 아픔 아님이 없음이요, 어떠한 벌레를 봐도 내 생명 아님이 없음이요,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으니 어찌 자비가 그 속에서 안 나오리까 이겁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라,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진실한 자비! 그 자비만이 들이고 내고 안에서 내고 들이고,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생활하시고 계시죠? 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움죽거리고, 이게 들이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이고 낼 때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들이고 내느냐, 아까 말대로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머리로 그냥 굴려서 작용을 하느냐, 들이고 내는 데 지혜롭게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왜? 새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새가 된다면 새가 그냥 가만히 내려서 앉죠. 내가 그렇게 내려앉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못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혹성들도 많죠. 또 우주는 우주대로, 은하계의 모든 별성들의 때가 다 지나면은 껍데기가 저절로 떨어지고 알맹이만 추려서 바로 블랙홀이 생산을 하죠. 이 모두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섭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도리를 공부하시게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 되고 하기 싫어서 아니 해도 안 되는 이러한 도리에 벌써 이 천지 간의 이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 이 공부를 해서 모든 걸 대치해라.' 이런 소임을 여러분한테다 준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된 인연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거를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몸과 가정과 모든 내 자녀들과 부모와 모든 이런 대치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이 생명들도 다 한마음이 되고, 모두 한마음이 됐다가 벌어지면 입자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절하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모두 대치하고 말이에요. 의사가 될 때는 의사가 되고, 관세음이 될 때는 관세음이 되고, 지장이 될 때는 지장이 되고, 칠성이 될 때는 칠성이 되고, 용신이 될 때는 용신이 되고, 지신이 될 때는 지신이 되고, 마음대로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입자도 똑같은 그 위치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그냥 모두가 천차만별로 갈라져서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자성 삼보가 계 정 혜를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완벽하게 돼서 해탈, 해탈지견향까지 이르게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를 우리가 뒤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고, 앞으로 가려면 갈 수 있고, 현재도 공해서 어떤 걸로라도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래가 돼야 이 우주의 태양력이나 모든 문제들, 지구 저 태양 모두, 달이나 별성들이나 우주 블랙홀, 그 별성의 문제들도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큰 별을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왕벌 하나가 알만 자꾸 까고 그 결의 벌은 전부 그 왕벌 하나를 따라서 다 살듯이 그런 거죠. (중략)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지구의 지형이 벌어졌다가 오므라졌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지형이 변경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죠? 이 변경이 되는 것도 순조롭게 잘 리드해 나가면서 변경이 된다면 이거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움죽거린다는 겁니다. 흙도 살아 있고 물도 살아 있고 돌도 살아 있고, 다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죽거리는 거는 하다못해 일본이라든가 어디 중공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어디든지 어떠한 손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어떤 게 변경이 된다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마는 멸망한다는 소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으냐. 멸망 자체가, 아니, 말이 거기에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수화풍이 전부 불종자인데 어떻게 멸망이 됩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생명이 생긴 것이 지수화풍으로 생겼는데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생겨서 이렇게 나무도 생명들도 이렇게 생겨 가지고 진화돼서 사람까지 됐는데, 바탕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멸망이 됩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이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넓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금성이나 화성이나 또는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이런 데는 전부 생명체가 없죠. 없다고 하죠? 그러나 물이 있거나 흙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그것이 공기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아주 펄펄 끓는 물이라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펄펄 끓는 물이 있어서 흐르면 흐르는 대로 완화되고, 종합이 되고 또 이게 한데 합쳐져서 생명이 생기게끔 돼 있는 거죠.

이 모두가 이렇게 심오하고 광대한, 이 법을 불법이라고 하죠. 이 불교라는 단어가 얼마나 광대하고 미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이게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체 벌레로부터 물, 뭐 지수화풍이 더불어 전부 다 불(佛)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불입니다. 불 아닌 게 하나도 없지요, 풀 한 포기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면서, 자기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아휴, 참 이건 아쉽다.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올라왔구요. '난 서서 다녔으면 좋겠다.', '난 제대로 먹을 만한 걸 못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들다.' 해서 모두 여러분이 서서 꼬리를 뗀 채 다니지 않습니까? 그 꼬리가 붙었던 자리는 아마 모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드러내고 살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육체 안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아주 생각하면 심오하죠.

그래서 아주 흰 사람이 있고 붉은 사람이 있고 또는 검은 사람이 있고 누런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서 다 지역별로 분포되어 살고 있고, 이 사과도 큰 거 작은 거 썩은 거 골라 놓듯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지망년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굵은 거는 추리고 썩은 거는 모두가 퇴비로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다시 해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용광로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느 지역이 전부 타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말이에요. 불쌍하게 만든 것도 자기네들이요, 불쌍하게 된 것도 자기네들이요,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생이 되는 것도 자기네들입니다.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추리는 거지요. 다시 추려서 다시 넣고, 다시 재생해서 나올 때 아, 여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이렇게 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세상 변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저 닿는 대로 돕고 이렇게 살지마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도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질 마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았으면 더 불쌍히 생각해서 더, 만약에 강도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왜 하게 됐느냐는 거죠. 강도질을 왜 하게 됐느냐부터 알아서 불쌍히 생각해서 선처를 베푼다면 다시 요다음에 태어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큰 인물로다가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는 데를 보시를 해서 보낸다거나 위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각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이게 지구가 망하면 다른 데도 다 지장이 있고, 다른 데도 다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갈라서 살고 이러면 되지, 넓은 데로 가서 살고 그러면 되지 아, 그러한 요량이 없어 가지고야 어떻게 이 세계를 대치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연구를 해서, 이 마음 세계의 연구로써 다 어떠한 거든지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이제는 집이 헐어져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할 텐데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수를 못 한다면은 속수무책으로 그 집이 헐어져서 우리는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리가 아니라면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보수를 하고도 에너지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도리가 아니라면 허공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그 도리를 알아서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과학자들한테 과학자들이 내가 돼서 연구를 하게끔 베풀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백도 되고 만도 되고 천도 되고 이렇게 그 개수가 따로 없이 사람이 열이라면 열 개도 되고, 백 개라면 백 개가 되고, 만 개라면 만 개가 되고 이렇게 분류돼서 천차만별로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름 없이, 함이 없이 하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하는 사람에게 모두 그렇게 배출시켜 주고 베풀어 준다면은 그것이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한 짝 못 들었던 거를 들게 해서 걸음을 걷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이런다면 한계 없는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못 한다, 못 한다. 우린 그렇게 되면 멸망해서 죽지."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멸망해서 죽을 테니깐 우리 굴이나 파고 들어가자." 하하하. 그냥 몇 달 먹을 거, 몇 해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나 살자 이러면은 벌레밖에는 못 됩니다. 땅속에 사는 벌레밖에는 못 돼요. 그리고 땅속도 땅속입니까, 어디? 지구가 어떻게 생긴 건데, 지금 공중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으로 들어가 봤던들 위냐 아래냐 이것도 없는 건데 거기 들어가 봤던들 뭘 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살 것 같습니까? 하하하. 만약에 지구가 망가진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죽기 싫어서 소소한 생각은 마시고 영원한 참다운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영원한 참다운 나가 있어서 종자 하나를 가지고도 세계를 다 먹이고 그 종자가 되남아서 또 세계를 다 먹이고, 영원하도록 먹일 수 있는 그 광대한 법을 우리가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바깥으로 끄달려서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묵묵히 한 발짝을 떼어 놓을 때에 그게 법이 돼야 하고, 그게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우주에 관한 건도, 우리 지구에 관한 건도, 우리 세계적인 건도 모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바깥 물질세계로 나와서
둥글게 응용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게 법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어떠한 걸림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2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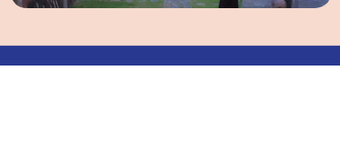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제품 세부 소개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